

새로운 ‘한국의 세계사’를 향해

박현희 지음, 권용철 옮김,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 그리기: 전근대 아시아에서의 문화 간 교류』(2024, 경인문화사)를 읽고

손고는 고려대학교 교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박사과정

I. 머리말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 그리기: 전근대 아시아에서의 문화 간 교류』(이하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 그리기』)는 7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접촉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책이다. 특히 두 문화권 간의 상호 교류, 지도 제작을 포함한 지리 지식의 확산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바스코 다 가마가 등장하기 이전 800년 동안 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류의 역사에 주목한다. 저자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유례없이 증대된 지리 지식이 이후 16세기 유럽의 해양 탐험과 ‘발견’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콜럼버스와 다 가마를 기점으로 서술되는 기존의 유럽중심주의적 서사를 극복하고, 다(多)중심적 세계사 모델을 모색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저자 박현희는 현재 뉴욕시립대학교(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와 CUNY 대학원 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근대 세계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교류를 글로벌한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다. 본서의 원서는 2012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사에서 *Mapping the Chinese and Islamic Worlds*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이는 저자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에서 동야

시아학 석사, 미국 예일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저자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부하며 쌓아온 학문적 역량이 압축적으로 반영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원서가 출간된 2012년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구사(global history)’적 시각을 적용한 해양사·교류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세계사적 연구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책은 740년부터 1500년까지 약 8세기에 걸친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접촉과 지리 지식 교류를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저자는 이 기간을 몽골제국을 중심으로 세 단계(① 몽골제국 시기 이전, ② 몽골제국 시기, ③ 몽골제국 시기 이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변화 양상을 병렬적으로 비교한다. 1단계(몽골제국 시기 이전)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에서는 750년부터 1260년까지 당·송 왕조와 아바스 칼리프 왕조를 중심으로 두 세계의 초기 접촉과 지리 지식의 확산을 다룬다. 2단계(몽골제국 시기)에 해당하는 3장과 4장은 13세기 몽골제국의 등장 이후 유라시아 전역에서 급격히 증가한 교류와 그 영향을 살펴 보며, 특히 1260년부터 1368년까지의 ‘팍스 몽골리카’ 시기 증대된 지리 지식과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몽골제국 시기 이후)에 해당하는 5장에서는 1368년부터 1500년까지, 몽골제국이 몰락한 이후에도 명 왕조에서 지속된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교류 및 지리 지식의 축적 과정을 조명하며, 이러한 지식이 이후 유럽의 해양 진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저자가 제시한 세 단계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어판 역시 출간이 갖는 학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1단계(750~1260): 몽골제국 시기 이전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초기 접촉과 지리 기록들

1단계에서 저자는 750년부터 1260년까지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초기 교류와 이를 통한 지리 지식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중국이 몽골의 지배에 들어가기 이전 첫 5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와 어떻게 접촉했으며, 당시 중국이 갖고 있던 이슬람 세계에 대한 기록들과 지리 지식, 지도 등

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슬람 세계와의 접촉이 당시 중국인의 지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저자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 발생한 첫 군사적 충돌이었던 751년 탈라스 전투와 해당 전투로 인해 두 세계 간에 발생한 중대한 교류사적 의의에 주목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의 종이 제작 기술이 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중국 기술자들에 의해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이후 종이는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대체하며 책과 도서관의 중대를 촉진했다. 종이 기술의 전파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저자가 탈라스 전투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당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두환(杜環)이 외국에 대해 남긴 현실적인 묘사 때문이다. 두환의 기록은 그의 사촌인 두우(杜佑, 735~812)가 8세기 중반에 저술한 『통전(通典)』 속 아랍인(大食)에 관한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초기 접촉과 당시 중국인들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특히, 두환의 기록이 8세기 중반 중국에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상당히 정확하면서도 풍부했음을 보여주며, 훗날 중국인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적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탈라스 전투에서 패한 이후, 755년부터 763년까지 지속된 안녹산의 반란으로 인해 당 왕조는 중앙아시아의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토번(현재의 티베트) 왕국과 같은 강력한 유목 국가가 부상하여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주요 통로였던 육로가 쇠퇴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두 사회 간의 접촉은 해상 항로가 번성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바닷길을 통한 해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지리 지식도 새로운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저자는 8세기 중엽 이후로 중국과 서아시아 간 해상 교역이 증가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중국과 서아시아와 간의 해상 교역과 관련해서 800년경에 가탐(賈耽, 729~805)이 편찬한 「광주통해이도(廣州通海夷道)」에 주목했다. 이 기록은 중국과 이슬람 세계를 통틀어서 광주와 페르시아만 사이의 해상 항로를 서술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잔존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탐의 기록은 짧지만, 바닷길을 따라 광주에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거쳐 대식(아바스 칼리프 왕조)까지 항해하는 상세한 여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이전에 작성된 두우와 두환의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슬람 세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지리 지식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탐은 「광주통해이도」 외에도 『해내화이도(海內華夷圖)』라는 세계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으며, 이에 저자는 훗날 송대(宋代) 이후 남아 있는 지도들 가운데 가탐의 지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송대 『여지도(輿地圖, 1265~1274)』에는 한반도와 일본의 지명도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해상 교역이 한반도와 일본으로까지 팽창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해석된다.

대략 1000년경부터 중국인은 장거리 해상 교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중국과 이슬람 사이의 해상 교역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가탐의 기록 이후 몇 세기 동안, 중국은 해상 교역에 대한 경험과 항해 기술을 축적하고 외국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꾸준히 보완해 나갔다. 그 결과, 12~13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슬람 세계를 포함한 외국에 대한 지리 지식의 수준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저자는 주거비(周去非)의 『영외대답(嶺外代答)』과 조여팔(趙汝适)의 『제번지(諸蕃志)』를 언급한다. 이들의 기록은 다방면으로 증보되었으며, 이는 당시 중국과 이슬람 세계가 단순히 상업적 거래로만 연결되는 것을 넘어, 문화적·지적 교류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 이슬람 세계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로부터 각종 천문 지리 및 수학과 물리학의 전통을 흡수하며 지리학 분야를 발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역시 9~10세기에 인도양을 거쳐 중국을 오가며 해상 교역에 종사하던 상인들을 통해 추가되었다. 해상 교역을 통한 두 세계 간의 접촉으로 이슬람 세계의 중국에 대한 지리 지식이 향상되었고, 그 결과 중국은 더 이상 동쪽 끝에 있는 미지의 땅이 아닌, 정기적인 교역과 여행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장소로 인식되었다.

8세기 중엽부터 해상 여행과 교역이 성장하면서, 이슬람 세계에서 중국 관련 정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탈라스 전투에 대한 아랍어 문헌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현존 기록은 9세기 중반 이븐 후라다드비(Ibn Khurradādhbih)의 지리 기록과 상인 여행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익명의 저술이다. 해당 문헌은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적·역사적 사실을 이슬람 세계에 소개

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여행 경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및 생산품 목록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당시 교역에 종사하던 상인이나 여행자들로부터 중국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던 시점에, 이슬람 세계는 이미 무슬림 학자들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로부터 물려받은 천문, 지리, 수학 등 각종 지식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세계 지리에 대한 체계적인 틀과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슬람 세계에서 편찬된 주요 지리 문헌을 분석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지리 지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당시 교역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중국 관련 정보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한다. 특히, 최초의 아랍인 지리학자의 저술이자, 이슬람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리 기록인 알-화리즈미(al-Khwārizmī)의 『지구의 형태』를 비롯하여, 이븐 후라다드비(Ibn Khurradādhbih)의 『도로와 왕국의 책』과 『중국과 인도의 소식』 등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가 공유하던 지적 토대를 분석한다. 또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아랍어 지도로서 1193년에 발키 학파(the Balkhī School)¹의 지리학자였던 알-이스타흐리(al-Istakhri)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가 갖는 주요 특징과 해당 지도가 훗날 이슬람 지도 제작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의 지리 전통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알-비루니(al-Bīrūnī, 973-1048)의 지도 및 투르크 중앙아시아를 지도의 중심에 배치하고 투르크어로 제작한 지도 등 다양한 출처의 지도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슬람 세계가 새로운 지리 지식을, 특히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갱신해 나갔는지를 고찰한다.

당시 지리 지식의 축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이슬람 지도와 지리 저술로, 저자는 12세기 시칠리아에서 알-이드리시(al-Idrīsī)가 은으로 주조한 세계지도에 주목한다. 비록 원형 지도는 소실되었으나, 함께 제작된 지리 보고서 『로제르의

¹ 발키 학파는 아부 자이드 아흐마드 비 살 알발키(Abū Zayd Aḥmad b. Sahl al-Balkhī, ?-934)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해당 학파는 초기 이슬람 지도 제작과 지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후기 이슬람 지도 제작은 그리스의 영향과 발키 학파의 영향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슬람 전통 지리학의 형성 과정과 지도학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Tibbetts, Gerald R. "The Balkhī School of Geographers."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2, Book 1,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Islamic and South Asian Societies*, edited by J.B. Harley and David Woodward, pp. 108-12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책』에 포함된 종이 지도들을 통해 그 원형을 유추할 수 있다. 알-이드리시의 지도는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현존하는 가장 초기의 세계지도 중 하나로, 특히 유럽의 해안선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아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이드리시의 지도는 이후 수 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이하 『강리도』)의 아프리카, 유럽, 인도양 부분을 그리는 데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이드리시 이후에도 이슬람의 지리 문헌은 계속 발전해 나갔다. 저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야쿠티 이븐 압드 알라 알-하마위(Yāqūt ibn 'Abd Allāh Al-Hamawī)가 1224년경 저술한 『지리 사전』과 무함마드 이븐 나지브 바크란(Muhammad ibn Najīb Bākrān)이 1244년에 저술한 『세계의 책』을 소개하며, 8세기 중엽부터 13세기에 걸쳐 이슬람 세계에 축적된 중국에 대한 지리 지식의 수준이 이 책들에 반영되어 있음을 밝혔다.

III. 2단계(1260-1368), 몽골제국 시기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접촉과 지리 지식의 확대

몽골제국의 창건으로 13세기와 14세기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정보와 지식이 쌍방향으로 교류되었고, 이슬람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지식도 극적으로 팽창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지도 제작자들은 처음으로 무슬림의 지도를 기반으로 삼아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의 해안선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몽골제국 시기에는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였던 호르무즈로 가는 해양 항로가 중국의 지도에 묘사되기 시작했다. 전대미문의 교류 확장과 접촉 덕분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성장했던 무슬림 공동체들로부터 더 많은 무슬림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했고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저자는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이 육로를 통한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외

교적 접촉이 다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동부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리 지식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1260년 원 왕조와 일 칸국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긴밀한 정치적 연계를 유지했으며, 이들 사이에서 사람, 물품,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었다.

저자는 몽골제국 시기, 서역을 여행한 양추(楊樞)나 왕대연(汪大淵)의 사례,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기록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이들의 기록이 이전보다 항로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내에서 이슬람 세계에 대한 더 풍부하면서도 믿을 만한 정보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왕대연의 『도이지략(島夷志略)』은 이후 명 왕조 영락제 시기에 정화의 항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몽골제국 시기 육로 개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저자는 천주(泉州)를 중심으로 한 해상 교역이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 일어난 문화 접촉에 핵심 거점이었음을 강조한다. 당시 몽골이 천주 시박사의 관리자로 일했던 포수경(蒲壽庚)과 천주의 다른 무슬림 유력 가문들의 지지를 받았기에 송의 수군(水軍)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원의 몽골 지도자들이 전통적으로 중국인이 맡아오던 주요 요직에 무슬림과 색목인을 임명하여 제국을 통치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몽골 조정은 무슬림을 위한 특별 관청인 회회국자감(回回國子監)과 회회사천대(回回司天臺)를 설립하여 그들이 원 왕조의 학문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말 앳딘(Jamāl al-Dīn, 扎馬魯丁)은 1271년 상도(上都)에 설립되었던 회회사천대의 첫 관리자가 되었으며,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를 수정한 이슬람의 행성 목록을 중국어로 번역한 만년력을 제작하여 중국 천문학에 기여했다. 『원사(元史)』에는 그가 쿠빌라이 칸에게 7개의 천문 관측기구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이슬람 세계의 천문 지식을 중국에 전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286년 자말 앳딘은 쿠빌라이에게 몽골이 정복한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된 지리서, 바로 『대원대일통지(大元大一統志)』의 제작과 새로운 지도 편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전체 영토는 과거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키타이의 지리서는 단지 40~50 종류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는 모든 땅이 우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도가 있기도 하지만, 저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슬람의 지도들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그리기 위해 이 지도들과 [중국의 지도를]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224쪽)

저자는 『비서감지(祕書監志)』의 기록을 통해 몽골 황제와 그 관료들 치하에서 중국과 세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의 규모가 이전 중국 조정보다 확장되었음을 설명한다. 또한, 원 왕조가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지도 제작을 위해 이슬람 지도와 중국 지도를 모두 활용했음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계지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원 왕조가 제작한 지도들은 대부분 소실되었기에, 저자는 조선의 『강리도』가 그 원형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강리도』 사본은 147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류코쿠대학 소장본이다. 지도 하단에는 제작 시기, 참여 인물, 활용된 두 점의 중국 지도와 그 유입 경로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담겨있다. 발문에 따르면 『강리도』는 중국에서 수입된 이택민(李擇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와 청준(淸濬)의 『혼일강리도(混日疆理圖)』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나, 두 지도 모두 현재는 소실된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강리도』의 지도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원형 지도들의 유래를 검토했다. 특히 저자는 『강리도』에 나타난 상세하고 채색된 아프리카 대륙에 주목하며, 이를 이슬람 지도 제작 전통의 명백한 영향으로 해석한다. 특히, 사하라 사막,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그리고 ‘달의 산’이라 불렸던 나일강의 세 수원을 묘사한 방식은 알-화리즈미와 알-이드리시의 지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 왕조는 이슬람과 중국의 지리 지식을 결합한 새로운 세계지도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두 세계의 지도 제작 전통이 융합될 수 있었다. 반면, 같은 시기 이슬람 세계의 지도학에서는 중국과 같은 획기적 전환은 없었으나, 지리적 내용과 지도 제작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증보되었다. 발키 학파와 알-이드리시 스타일의 지도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한편,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새로

운 요소가 추가되는 증보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이란 출신 지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자카리아 이븐 무하마드 알-카즈비니(Zakariyā' b. Muhammad al-Qazwini, 1203-1283)의 저술이 있다. 그의 저술과 지도에서는 몽골 지배하에서도 아랍 지리학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었으나, 기존과 달리 중국을 북반구 동쪽의 주요 대륙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아랍 세계와 비슷한 크기로 중국 대륙을 그려, 당시 중국을 거대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서 축적된 지식은 몽골의 유라시아 지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 저작을 통해 집대성되었다. 저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1308년 라시드 알딘(Rashid al-Din, 1247-1318)이 편찬한 『집사(集史)』를 소개한다. 라시드 알딘의 중국 관련 서술을 살펴보면, 그가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중국을 세계의 역사와 지리에 통합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원 왕조가 몽골제국의 종주국으로서 거대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중국의 역사, 지리, 대운하와 인공호수, 적수담, 원대 중국의 행정구역과 관료 체계, 그리고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라시드 알딘은 어떻게 이러한 풍부한 중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앞서 언급했듯, 저자는 일 칸국(1260-1335) 시대를 무슬림의 중국 지식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평가한다. 이는 일 칸국이 원 왕조와 직접적인 정치·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자말 알딘과 같은 무슬림 학자들은 이란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최초의 세계지도 제작에 기여했다. 반면 중국에서 이란으로 간 몽골인 재상 겸 외교관 볼라드(Bolad, 孛羅)는 중국의 역사와 지리 정보를 이란 역사가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는 『집사』 저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라시드 알딘의 『집사』는 이러한 지식 교류가 가능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걸작으로, 몽골 시기 중국에 대한 무슬림 지식의 양적·질적 도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자, 일 칸국과 원 왕조 간의 단순한 상업적 접촉을 넘어선 학문적 교류의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븐 바투타(Ibn Battūta, 1304-1368)의 사례를 통해 14세기 인도양을 가로질러 중국과 이슬람 세계를 연결했던 해상 교역 네트워크와 이를 통한 무슬림들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조명한다. 1325년 메카 순례를 위해 출발한 이븐 바투타는 이후 22년 동안 남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국을 포함한 아시

아를 여행했다. 저자는 그의 기록에 기존 아랍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국에 대한 레토릭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중국 관련 정보도 등장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중국인이 공예와 회화에 뛰어나다는 설명은 이전부터 이슬람 세계에 자리 잡은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지만, 중국에서 동전과 함께 지폐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이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정보였다. 또한, 이븐 바투타는 바다에서 강과 대운하로 이어지는 수로를 통해 원의 수도 북경까지 가는 여정을 상세히 서술하며, 그 경로 곳곳에 무슬림 여행자들이 필요한 물자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슬림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기록했다.

IV. 3단계(1368-1500), 몽골제국 시기 이후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교류가 남긴 유산

몽골의 지배가 종결되면서 중국에는 한족(漢族)들이 세운 명 왕조가 들어섰고, 이슬람 세계는 여러 왕국으로 나뉘었다. 변화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접촉은 이전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시대에 축적된 지리 지식과 새로운 지도 제작 방식은 계속해서 전파되며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저자는 흔히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접촉이 몽골의 몰락과 함께 끝이 났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면 두 세계 간의 접촉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명 왕조가 파견한 진성(陳誠, 1365-1457)의 사절단과 티무르 왕조에서 파견된 기야스 알 딘 나카쉬(Ghiyāth al-Dīn Naqqāsh, 1419-1422)의 사절단이 있다.

몽골제국 시기에 발전한 지리 지식과 지도 제작 방식은 명대에도 계승되어 새로운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명대의 대표적인 세계지도인 『대명혼일도(大明混一圖)』에는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인도를 포함한 세계의 지리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16세기 나홍선(羅洪先)이 제작한 『광여도(廣輿圖)』에서는 제작자가 원대 주사본(朱思本)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광여도』에 포함된 「동남해이도(東南海夷圖)」와 「서남해이도(西南海夷圖)」 속 아프리카의

묘사는 앞서 추론한 이슬람의 지도 전통에 영향을 받은 원대 지도와 유사하다. 한편, 이슬람 세계에서도 중국이 포함된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가 널리 유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븐 할둔(Ibn Khaldūn, 1332-1406)의 저술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저자는 명 왕조 영락제 연간에 서아시아와 동아프리카 해안으로 파견된 정화의 원정 또한 앞선 교류 시기의 영향을 받았기에 이뤄진 것으로 설명한다. 당시 정화의 항해에 참여했던 무슬림 통역가 마환(馬歡)은 원대 왕대연이 작성한 『도이지략』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마르코 폴로의 여행 기록이 이후 항해왕 엔리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시아를 찾고자 탐험을 시작하도록 고무한 것처럼, 왕대연의 기록 역시 명대에 정화의 대원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명말에 편찬된 『무비지(武備志)』 속에는 40장의 개별 지도로 구성된 정화의 항해도가 실려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를 연결하는 직선 항로를 보여준다. 정화의 항해도는 아랍의 항해 기술이 중국인 선원들에게 전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아마도 원 왕조 시기에 배운 항해술이 명대에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명대의 모든 정보가 모두 원대로부터 계승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정화의 원정에 참여했던 마환의 『영애승람(瀛涯勝覽)』은 이전의 중국 기록보다 더욱 상세하게 무슬림 순례자들의 목적지였던 카바(Ka'bah), 즉 이슬람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마환은 종교적 관습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수출입 교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덴(Aden)에서 교역하며 얻은 얼룩말, 사자, 기린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명대의 성공적인 원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정보였다.

몽골제국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는 항해 지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저자는 이븐 마지드(Ibn Mājid, 1462-1498)의 항해 보고서를 통해 무슬림의 전통적인 별의 고도 측정 항해술이 중국의 나침반 활용 방식과 결합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븐 마지드의 저술은 오랜 기간 축적된 무슬림의 항해 지식과 인도양 전역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중요한 기록으로, 이러한 무슬림의 항해 기술은 훗날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유럽의 아시아 진출에 활용되었다. 이로써 75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해상 교류를 통해 축적된 지리 지식은 1500년 이후 유럽과 세계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V. 맺음말: 번역서 출간의 학술적 의의

이 책은 전근대 중국과 이슬람 사회 간의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접촉과 교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리 지식이 이후 유럽에 전해져 이른바 ‘대항해시대’가 열릴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전근대 아시아 내 지리 지식 교류를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유럽 중심주의적 서사가 강조하는 유럽의 ‘성공’이 결코 아시아 없이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 그리기』는 원저 출간 후 십여 년이 지난 202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에서 번역을 완료하여 출간되었다. 비록 원저 출간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역서가 출간된 셈이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유럽중심주의적 서사를 극복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 책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선행 연구로 참고된다는 점에서 한국어 번역서 출간은 충분히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

최근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한국의 세계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안적 서사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을 고려했을 때, 번역서의 학술적 의의는 새로운 ‘한국의 세계사’ 서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지도’라는 참신한 소재를 교류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 독자들에게 생소했던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 지리 지식 교류의 세계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이를 조선의 『강리도』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조선 고지도의 세계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 국역본의 출간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 한국 독자들이 세계사 속에서 조선의 고지도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한국의 세계사’ 서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는 책의 주요 내용이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반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역시 유라시아 교류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15세기 조선에서 제작된 『강리도』를 전근대 아시아의 두 문화권인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리 지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역사적 산물로 언급한다. 『강리도』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조선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더 넓은 세계의 지리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맥락에서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강리도』가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는 점에서 그 유물적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지도에 반영된 교류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작업일 것이다. 15세기 초 조선이 제작한 『강리도』는 어떻게 아라비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릴 수 있었던 것일까? 단순히 『강리도』 제작에 활용된 모본 지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게 인류가 세계 지리를 이해하고 확장해 온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접근한다면, 그 배경에는 흥미진진한 교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조선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지리 지식과 정보가 『강리도』에 담길 수 있었던 배경을, 약 8세기에 걸친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접촉과 상호 교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 중국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문헌자료와 다양한 지도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이 연구는, 한국 독자들에게 생소하게 여겨져 온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교류가 한반도의 역사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 그리기』가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사 중심적 서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의 세계사' 서술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